

순천시 ‘실랑게 시즌2’ 본격 시행

정원서 온전히 누리는 휴식 컨셉
청년 운영 총 22개 마을숙소 참여

순천시가 마을 일상과 쉼의 가치를 담은 체류형 로컬여행 브랜드 ‘실랑게 시즌2’를 본격 추진하며 새로운 여행 트렌드 제시에 나섰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실랑게’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순천만국가정원 내에서 운영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정원에서 온전히 누리는 휴식을 컨셉으로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마을로 범위를 확장해, 지역의 매력과 로컬자원을 여행 콘텐츠로 재해석한 ‘실랑게 시즌2’를 통해 ‘정원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체류형 여행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실랑게’는 이름은 우리말 ‘쉬다’와 독일어로 길다는 뜻의 ‘Lange’를 조합한 단어로, ‘조용히, 오래 쉬어가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실랑게 시즌2, 마을호스트 모집 결과 총 22곳의 마을숙소가 신청했다. 권역별로는 원도심 10곳,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6곳, 순천만 권역 6곳으로 분포됐다. 청년이 운영하는 숙소가 다수 포함됐으며, 숙소 전반적인 컨디션과 방문자 만족도가 높은 숙소들이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선정된 숙소는 단순한 숙박 기능을 넘어, 지역 체험, 투어, 음식 등 다양한 로컬자원을 활용



외국인 여행객들이 순천의 원도심 숙소에서 한국의 일상을 즐기고 있다.

순천시 제공

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오는 6월부터 숙소 맞춤형 컨설팅과 로컬 파트너사 연계해 각 숙소의 콘텐츠를 구체화하고, 7월 중에는 최종 체류형 프로그램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어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예정인 ‘2025 로컬여행주간’에 맞춰 완성된 숙소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숙박·체험·미식이 결합된 통합 여행상품을 집중 판매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실랑게’ 통합브랜드 아래 참여 숙

소들을 집중 홍보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투어, 정원 위케이션 등과 참여 숙소를 연계해 순천을 대표하는 체류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의 마을을 하나의 정원으로 바라보며, 여행자들이 그 안에서 머무르고 쉬어갈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며 “지역 청년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로컬여행 생태계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보성군, 주민 건강증진 ‘소그룹 운동교실’ 호응

보성군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 지도자와 영양사가 함께하는 ‘의료600’ 1대6 소그룹 운동 교실을 운영,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600’ 1대6 소그룹 운동 교실은 신체활동이 부족한 건강 고위험군의 체력 향상과 비만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또는 복부둘레 80cm 이상인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매주 1회, 2기수로 나눠 보성군 보건소 운동치료실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개인별 체력과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1대6 비율의 소규모 그룹 수업을 통해 체계적인 운동 지도를 받는다.

보건소는 AI 기반 체형분석기 ‘Real PT’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 수업이 없는 날에는 스마트폰으로 제공되는 운동 영상을 통해 자가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eal PT’는 군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체형 교정과 체력



보성군보건소에서 체육 지도자와 참여자들이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한 일대일 맞춤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지속적인 운동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보성군보건소는 오는 6월 23일부터 10주간 운영되는 ‘의료600’ 1대6 소그룹 운동 교실 3기와 4기 참여자를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

여를 원하는 군민은 보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성군 보건소는 “비만과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줄이고, 군민 건강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담양군 ‘농업정책보험’ 보험료 지원

병해충 특약 시 ‘7종 피해’ 보장

담양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6일 담양군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3종 보험에 대해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 지원한다.

담양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가운데 경작 면적이 1만㎡ 미만인 영세 농가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자부담분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벼 재배 농가도 자부담 없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기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가 역시 전액 지원 대상이다.

보험 가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며,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연중 가입 가능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목과 시설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 지역 농협에서 확인해야 한다.

벼 재해보험은 오는 6월 2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병해충 특약을 선택하면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7종의 병해충 피해까지 보장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며 “기상이변이 반복되는 요즘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화순군, 내달 고인돌오토캠핑장서 배움캠프 운영

총 2회...회차별 20팀씩 모집

화순군은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의 가치를 알리고, 가족 단위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배움캠프’를 고인돌오토캠핑장에서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총 2회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캠프는 초·중등생 자녀를 둔 가족이 세계유산 고인돌을 체험하며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좌표를 따라가는 고인돌 유적 탐방’을 비롯해 반달돌길을 직접 만들고 이를 이용한 채소 수확, 암각화 문패 만들기 등 고인

돌을 주제로 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네이버 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회차별 20팀씩 총 40팀을 모집한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화순고인돌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은 배움캠프를 비롯해 오는 하반기에는 ‘화순 고인돌 캠핑왕’, ‘별빛 문화공연’까지 고인돌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가족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운 고인돌사업소장은 “세계유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번 캠프는 고인돌의 가치를 온몸으로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제2회 여수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 작품공모

여수시는 오는 9월 10~12일 개최하는 제2회 여수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를 앞두고 6월 말까지 작품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수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는 웹드라마 성지 여수에서 열리는 전 세계 웹콘텐츠 창작자들의 축제로, 지난해 처음 개최돼 총 1,300여편의 웹콘텐츠를 접수하며 마무리됐다. 올해는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캔들라이트, 포럼, 감독과의 대화, 레드카펫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웹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국내외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 부문은 △웹콘텐츠 △숏폼 △인공지능(AI) 기반 창작물 등이다. 여수를 주제로 한 특별 부문을 추가해 감각적인 관광 콘텐츠도 발굴한다.

여수시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60편의 작

품을 선정하고 7월 중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화제 마지막 날 열리는 시상식에서 여수를 상징하는 특별 제작 트로피와 함께 총상금 2,0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 후보자들은 영화제 기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여수시는 웹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집중하고 여수의 관광 길러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제2회 여수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는 창작의 자유, 기술의 융합, 여수의 낭만이 어우러지는 무대가 될 것이다”며 “새로운 이야기와 상상력을 지닌 창작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기사제보받습니다.
jndnnews@naver.com



클릭! 고향속으로



담양군 봉산면 지사협, 어린이 영화관람 지원

담양군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담빛영화관에서 봉산초등학교 학생과 관내 유치원생 5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화관람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해부터 군 보조금을 활용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학년별로 ‘시크릿주주: 마법의 하모니’와 ‘마인크래프트’ 두 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간식꾸러미를 제공했다.

봉산초등학교 관계자는 “영화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있어 특별한 경험이 됐다”며 “아이들을 위해 영화 관람 행사를 마련해 준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양=정일남 기자



장흥군 유치면, 녹차 재배농가 일손돕기

장흥군 유치면 행정복지센터는 녹차 재배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손 돕기에 나선 직원들은 녹차잎을 따고 나르는 등 수확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녹차잎을 따 엮전 모양으로 묶치고, 이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건조시키면 고려시대 수라상에 오르는 전통차 ‘청대전’이 만들어진다.

문정아 유치면장은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드릴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청대전의 시조인 보림사 가지산 일대 40ha의 야생 차밭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광양경찰, 치안 종합성과평가 향상보고회

광양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매화마루에서 경무과장과 각 계·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치안 종합성과평가 향상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치안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각 부서별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치안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과 방향성을 논의했다.

김재선 광양경찰서 경무과장은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성과평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광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 기자